

 질병관리청		<h1>보 도 자 료</h1> <p>9월 27일(월) 브리핑 시작(14:10) 이후 보도</p>	
배 포 일	2021. 9. 27. / (총 21 매)	담당부서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
팀 장	황 경 원	전 화	043-913-2310
담 당 자	전 채 민		043-913-2309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 완료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발표 -

- ◇ 10월 말까지 고령층(60세 이상) 90%, 성인(18세 이상) 80% 접종 완료
- ◇ mRNA 백신의 접종간격 단축(6주 → 5주 또는 4주),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접종 등으로 접종완료를 제고 →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변이 대응
- ◇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임신부 대상 접종을 10월부터 시행
- ◇ 고령층·고위험군부터 기본접종 6개월 후 추가접종(부스터샷) 실시 → 백신 효과 유지 및 중증사망 예방 * 60세 미만 일반인 추가접종은 세부시행계획 검토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접종대상 확대 및 추가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계획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9.16일)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에서 제시한 **접종원칙***에 따르되, 당시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과,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계획을 포함하였다.

* ① 중증·사망 예방, ② 의료·방역, 사회필수기능 유지, ③ 지역사회 전파차단

1. 예방접종 추진상황

- 올해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9월 27일 현재까지 3,809만 명(인구 대비 74.2%)이 1회 이상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324만 명(인구 대비 45.3%)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 18세 이상 성인의 1차접종률은 86.3%, 접종완료율은 52.6%이며,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1차접종률(91.7%)과 접종완료율(86.8%)은 높은 수준이다.
 - 확진자 예방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완전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예방효과가 77.0%, 사망 예방효과가 73.7%로 나타났다.
- 그간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1.8일) 및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발족(1월 3주)으로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전문가·의료기관 등과 민관학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해 왔다.
 - 이에 더해,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구축·운영을 포함한 탄탄한 국가 예방접종사업 운영 체계 아래,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 및 잔여백신 당일예약 기능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감시(조기 인지), 신속 대응과 역학조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으로 이루어진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 4분기 예방접종 추진방향

□ 4분기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추진목표>

- ①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완료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 ② 미접종자 접종기회 제공으로 접종률 제고 및 면역형성인구 확대
- ③ 접종완료를 제고로,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변이대응을 도모
- ④ 접종대상 확대(소아청소년, 임신부)에 따른 안전한 접종기반 준비
- ⑤ 추가접종(booster shot)을 통해 고위험군 보호 강화

- 첫째, 10월 말까지 고령층(60세 이상) 90%, 성인(18세 이상)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 둘째,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기회를 제공(10.1일~)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시킨다.
- 셋째, mRNA 백신의 접종간격 단축(6주 → 5주 또는 4주),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접종 실시 등을 통해 접종완료율을 높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응한다.
- 넷째,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인 임신부에 대해 접종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 산부인과학회 등과 연계한 안전접종체계를 구축한다.
- 다섯째, 고위험군(고령층, 의료진 등)부터 기본접종 6개월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백신의 예방효과를 유지하고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한다.
 - 특히, 18세 이상 성인 중 면역저하자(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3. 주요 접종계획

□ 10월부터 시행할 4분기 주요 접종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미접종자 접종대책]

-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는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보다 더 높여 면역 형성인구를 확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 9월 18일(토)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은 9월 30일(목) 18시까지 진행되며, 예약하신 분들께서는 10월 1일(금)부터 10월 16일(토)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mRNA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30세 이상 대상으로 1차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희망할 경우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도 잔여백신 접종을 허용한다.
 - 안센 백신은 50세 이상 접종을 기본으로 하나, 30세 이상 연령층 중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어려운 대상 중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에 접종 문의 시 지역별 지정 접종기관에서 즉시 접종 가능하다.

2 [접종완료율 제고]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완료율을 목표로 mRNA 백신의 9·10월 공급규모 및 의료기관 접종여건,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접종간격을 단축한다.
 -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공급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8월 16일부터 mRNA 백신 2차접종 받으시는 분들의 접종간격을 6주로 조정하여 적용한 바 있다.
- 신속한 2차접종 시행을 위한 mRNA 백신 접종간격 조정 일정은 아래와 같다.
 - 10월 2주(10월 11일~10월 17일)에 2차접종이 예약되어 있는 분들부터 일괄 조정하되, ①10월 2주~11월 1주(10월 11일~11월 7일) 2차접종 예정자는 접종간격 1주 단축(6주 → 5주), ②11월 2주(11월 8일~11월 14일) 2차접종 예정자는 2주 단축(6주 → 4주)하여 적용한다.

<mRNA 백신 접종간격 조정 계획>

2차접종예정일	10월1주 (10.4일-)	10월2주 (10.11일-)	10월3주 (10.18일-)	10월4주 (10.25일-)	11월1주 (11.1일-)	11월2주 (11.8일-)
당초(6주)	A	B	C	D	E	F
예약인원(만명)	216	127	305	320	157	163

▼ <접종간격 단축>

조정(4주·5주)	A	B	C	D	E	F
예약인원(만명)	343		305	320	321	

- * 10월1주()는 미조정, 10월 2·3·4주, 11월1주()는 1주 단축, 11월2주()는 2주 단축
- ** 조정된 일정에 접종기관이 휴진하거나 예약가능인원이 초과한 경우, 익일로 자동연기(단, 10.11일(대체공휴일)은 10.8일(그 전주 금요일)로 변경)

- 일괄적으로 조정된 2차접종 일정은 9월 28일(화)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 개인 사정에 따라 일괄 조정된 일시에 접종이 곤란할 경우, 10월 1일(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 * 예약일 변경은 1차 접종 후 5~6주 범위로 가능하며, 백신 배송 및 의료기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일 기준 2일 전까지만 조정 가능
- ** 잔여백신을 활용할 경우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 준하여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2차 접종 가능

- 10월부터 신규로 1차접종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간격으로 2차접종 예약일이 적용된다.

- * 미접종자 중 mRNA 백신 예약자, 소아청소년(12-17세), 임신부 등

○ 추진단은 접종간격 내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2차접종 일정을 문자 등으로 추가 개별 안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2차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 * 접종기간내 2차접종을 실시한 비율 : 99.4%

○ 이를 통해 10월 말까지 미접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의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③ [소아청소년 접종계획]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 수립 당시, 허가된 백신이 없어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2~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지난 <8~9월 시행계획>(7.30일)을 통해 소아청소년 접종계획을 추가검토 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일)를 거쳐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 결과>

(소아청소년) 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12-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12-17세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고위험군 및 일반인구)의 백신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도록 권고함

-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낮지만,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및 교육 기회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 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 소아청소년 접종을 기본방향은,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
 - *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저하자 등
- 소아청소년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2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 및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사전예약 및 접종을 시행한다.
 - 16~17세('04~'05년생)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10월 1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접종하며, 12~15세('06~'09년생)는 예약 및 접종 일정이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소아청소년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일정>

대상	16-17세 ('04년생-'05년생)	12-15세 ('06년생-'09년생)
사전예약	10.5일(화)-10.29일(금)	10.18일(월)-11.12일(금)
접종	10.18일(월)-11.13일(토)	11.1일(월)-11.27일(토)

* 출생연도 기준. 초등 6학년 중 '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백신종류는 현재 소아청소년(12-17세)에 허가된 화이자 백신이며, 접종간격은 3주로, 본인 또는 대리예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를 기반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 안내문과 동의서 등 필요한 정보는 소속 학교를 통해 배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4 [임신부 접종계획]

- <8~9월 시행계획>(7.30일)을 통해 추가검토 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는 임신부 접종계획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 간담회(9.1일)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일)를 거쳐 임신부를 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접종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 결과>

(임신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임신부를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 임신부는 코로나 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 발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낮으나, 감염시 위중증율은 6배 수준으로 높으며, 4차유행에 따라 증가 추세*이다.

* 6월 48명(10.4명/10만명) → 7월 107명(23.1명) → 8월 173명(37.4명)

**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고(미국 MMWR, 2020), 임신결과(조산, 저체중 분만 등)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JAMA Pediatric, 2021)

-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기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 13.6만 명(9.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통계)

- 사전예약은 10월 8일(금)부터 진행되며, 예약 시 임신부 정보*(임신 여부, 출산예정일)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접종 시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하고자 한다.

* 잔여백신 접종자 등 사전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입력

-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10월 18일(월)부터 실시된다.

- 특히, 임신부 보호를 위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접종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추가접종(booster shot) 시행계획]

-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진 바, 백신 예방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일)를 거쳐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 결과>

(추가접종)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 특히,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 추가접종은 중증·사망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 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10월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면역저자자는 기본접종 후 6개월 경과 이전에도 추가접종 우선 시행

- 우선 1단계로 10월부터는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접종하고,
- 2단계로는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백신 종류는 mRNA 백신으로 실시되며, 면역저자자를 제외한 대상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받게 된다.
- 1단계로 실시되는 추가접종의 경우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또는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시행된다.

①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10월 18일(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11월 1일(월)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 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며, 면역저하자 정보*를 구축하여 사전예약 후 접종을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으로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를 통한 DB 구축

②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상반기 접종 시행방식과 유사하게 의료기관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통해 접종받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 희망자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한 백신 물량을 배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추가접종 일정>

대상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규모	6만 명	50만 명	34만 명
기본접종 정보	화이자 백신 2회 (2차접종: 3.20.~4.2.)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2차접종: 5.1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2차접종: 5.19.~)
접종일정	10.12.(화)~10.30.(토)	11.10.(수)~	11.15.(월)~
접종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	60명 이상: 자체접종 그 외: 사전예약 기반 접종

- 단, 1단계 추가접종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하여, 퇴사 및 퇴원 등으로 현재 근무 또는 입원 중이 아닌 자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단, 이직·전원 등 유사한 기관으로 근무지 등이 변경된 경우 본인 희망 시 현재 소속 되어 있는 기관에서 접종 가능

③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은 10월 5일(화)부터 시행되는 사전예약을 통하여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접종은 10월 25일(월)부터** 실시된다.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 등

- 특히, 10월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되는 분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이용·입소자와 종사자이다.
-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리예약 등 예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 당부

□ 추진단은 그동안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의 의료진 및 관계 종사자 덕분에 9월 27일(월) 0시 기준 현재 약 3,809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접종계획에 따라 10월부터 미접종자에 대한 1차접종이 시작되며, 순차적으로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또한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추진단은 4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 예방접종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은경 단장은 “10월부터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1> 임신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권고

<붙임2>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관련 Q&A

<별첨1>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별첨2>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참고자료

붙임 1

임신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제외되었던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 추가접종 시행에 대해 권고하였으며, 9월 16일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임신부에 대한 접종 계획입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미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임신부 코로나19 확진자는 중환자실 입원 위험이 3배, 인공호흡기 사용 위험이 2.9배, 사망률은 1.7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¹⁾. 또한 미국, 영국 등 18개 국가가 참여한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하는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²⁾.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731명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이중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일반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약 6배 높았습니다. 국외 사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에게도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에서 임신부에 대해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임신부의 경우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고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신부 본인뿐만 아니라 임신부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예방접종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질병관리청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문을 받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임신부 접종 안내문을 작성하여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계획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성인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접종받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12-17세 소아청소년에게 사용 허가된 백신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를 통해서도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화이자백신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6.15일)는 12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이상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차 접종 완료율: (미국) 12-15세 41.8%, 16-17세 50.1%, (독일) 12-17세 31.4%
12-17세 접종 건수: (영국) 1차 902,437건, 2차 200,213건

-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성인에 비해 낮지만,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질환, 면역저하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중증 진행 및 사망 위험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³⁾⁴⁾⁵⁾.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낮지만,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사회적 결손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 본인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유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등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백신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 국외 12-17세 이상반응 신고현황>

(단위: 건/접종 10만건당)

국가명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사망
미국	175.3	화이자 0.48 모더나 0.51	* (12-15세)1차 0.26건/2차 2.09건 * (16-17세) 1차 0.25건/2차 3.4건		1.84
영국	392.50	1.46	0.42	0.42	1.79

*미국 CDC, MMWR, 70(32):1094-1099 / CDC COVID-19 Vaccine Task Force, 6.23, 8.30 / JAMA, doi:10.1001/jama.2021.15072, 9.3.

*영국: weekly summary of yellow card report(21.9.9.)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021년 9월 25일까지 보고된 국내외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12-17세 소아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잠재적 위험을 상회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질환, 면역저하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순편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고위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시도록 권고합니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등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문과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심근염, 심낭염 발생에 대한 감시, 신속한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도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이 본인과 부모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접종에 대한 계획입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종사자 등 상반기 우선 접종대상이었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면역저하자 등 기본접종으로 충분한 면역형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와 최신 연구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예방접종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Characteristics of symptomatic women of reproductive age with laboratory-confirmed SARS-CoV-2 Infection by pregnancy status-United States, January 22-October 3, 2020, MMWR 2020
- 2) Villar J, et al. Maternal and Neonatal Morbidity and Mortality Among Pregnant Women With and Without COVID-19 Infection: The INTERCOVID Multinational Cohort Study. JAMA Pediatr (2021). PMID 33885740
- 3) Kompaniyets L, Agathis NT, Nelson JM, Preston LE, Ko JY, et al.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Associated With Severe COVID-19 Illness Among Children. JAMA Network Open. 2021;4(6):e2111182. doi:10.1001/jamanetworkopen.2021.11182
- 4) Bellino S, Punzo O, Rota MC, et al. COVID-19 Disease Severity Risk Factors for Pediatric Patients in Italy. Pediatrics. 2020;146(4):e2020009399
- 5) B.K. Tsankov, J.M. Allaire, M.A. Irvine et al. Severe COVID-19 Infection and Pediatric Comorbidit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21;103:246-256, doi.org/10.1016/j.ijid.2020.11.163

붙임 2 |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관련 Q&A

[mRNA 백신 접종간격 단축 관련]

Q1. 접종간격을 45주로 단축(일괄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당초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의 접종간격 연장(4주→6주)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 10월 이후 mRNA 백신의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접종간격을 4.5주로 단축합니다.
- 더불어, 전체 인구 대비 70% 이상의 1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 1-2차 접종간격 단축이 필요합니다.

Q2. 2차 접종간격이 6주에서 45주로 일괄조정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2차 접종 예약일이 10월 2주~11월 1주(10월 11일~11월 7일)*인 경우 접종간격이 5주로 단축되며, 11월 2주(11월 8일~11월 14일)*인 경우 4주로 단축됩니다.
 - * (1차 접종일) 9월 1·2·3·4주(8.30.~9.26.) ** (1차 접종일) 9월 5주(9.27.~10.3.)
 - 또한, 9월 27일 자정 이후 1차 접종을 예약하는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4주 후로 자동 예약됩니다.
- 단, 이미 개인 사정에 의해 보건소·콜센터·접종기관을 통해 6주 이전으로 2차 접종 예약일을 변경한 경우, 이번 일괄조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3.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2차 접종 예약일 일괄조정(9.27일) 후 9월 28일(화)부터 대상자에게 개별로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4.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사정으로 일괄조정된 일정에 2차 접종이 곤란한 대상자는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직접 1차 접종 후 5~6주 범위로 2차 접종 예약일을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2차 접종 예약일 개별 변경은 기존 접종 예약일의 이틀 전까지 가능합니다.
- 잔여백신을 활용하는 경우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로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Q5.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이 5주보다 늦습니다. 잘못 조정이 된 건가요?

- 1차 접종 후 4~5주로 일괄조정하였으나, 일괄조정된 일정이 접종기관의 휴진일이거나 접종기관의 예약가능인원이 초과된 경우, 2차 접종 예약일이 익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 단, 10.11일(대체공휴일)은 10.8일(그 전주 금요일)로 변경
- 일괄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10.1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2차 접종 예약일 변경 가능합니다.(1차 접종 후 5~6주)

[소아·청소년 접종 관련]

Q1. 사전예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04년~2005년생인 경우에는 10월 5일(화) 20시부터 10월 29일(금) 18시 까지, 2006년~2009년생인 경우에는 10월 18일(월) 20시부터 11월 12일(금) 18시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예약기간	예약대상
10월 5일 20시~10월 29일 18시	16-17세('04.~'05. 출생)
10월 18일 20시~11월 12일 18시	12-15세('06.~'09. 출생)

Q2.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예약하나요?

- 사전예약 누리집 이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전화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예약할 수 있으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예약(대리 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Q3.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까?

-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잔여백신 접종도 허용되나,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단,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므로, 미소지 학생의 경우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12세 이상 접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므로, 잔여백신도 화이자 백신만 접종 가능합니다.

Q4. 예약한 일자에 접종이 불가능한데, 예약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 또한, 백신 배송을 위해 접종일 약 2주 전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접종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 전일에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재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접종 관련]

Q1. 임신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임신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으며, 코로나19 백신에는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 예방접종 시기를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Q2.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을 어떻게 하나요?

-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내 별도 페이지에서 임신 여부 및 임신주수를 입력 후 예약 가능합니다.
- 또한, 접종기관은 접종 전 임신부의 건강상태와 임신부 정보(임신주수, 기저질환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접종을 시행합니다.

Q3. 임신주수·기저질환 등 임신부 정보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제한이 있나요?

- 임신부 정보(임신주수, 기저질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 단, 기저질환자, 35세 이상 고위험임신부, 초기 임신부(12주 이내)는 전문의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Q4. 임신 중 다른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나,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Q5.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임신을 한 경우, 2차 접종을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1차 접종 후 백신별 권고 접종간격*이 지난 경우에도, 보건소를 통해 희망하는 날짜로 2차 접종 예약일을 변경하여 2차 접종 가능합니다.

* (AZ) 4~12주, (화이자) 3~6주, (모더나) 4~6주

[추가접종 관련]

Q1. 추가접종 사전예약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10.5일부터 열리는 사전예약은 대상은 접종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대상이 60명 미만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 특히,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의 이용·입소자와 종사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3일 전부터 개별 문자 등으로 예약 안내 예정이며, 접종은 10.25일부터 실시됩니다.
 - ※ 코로나19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

Q2. 추가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맞게 되나요?

- 추가접종은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화이자 백신으로 2회 접종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75세 이상 등은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 그 외 백신 접종자는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백신으로 접종 시행예정입니다.(추후 별도 안내)

Q3. 추가접종은 어디서 맞게 되나요?

- 코로나19치료병원, 요양병원 및 접종대상이 60명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대상이 60명 미만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